

01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-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

법정감염병 2급으로 분류되며,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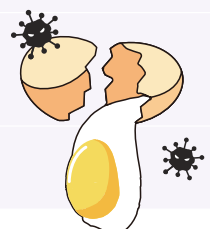
전파 경로	- 오염된 식수, 식품을 매개로 전파 - 적은 양으로도 감염 가능
증상	- 발열, 오심, 구토, 심한 경련성 복통, 설사(경증에서 혈변까지 다양한 양상) 등 발생 - 용혈성 요독 증후군 발생(빈혈, 혈소판 감소증, 급성신부전 등) - 증상은 5~7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
치료	- 대증치료(증상에 따른 처방)
전염 기간	- 증상 소실 후 대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전파 가능 - 성인 : 1주일이하, 어린이 : 최대 3주가량 균 배출
환자 관리	- 격리해제 > 자가 치료시 증상소실 후 48시간 경과 후 격리 해제되며,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는 퇴원 시 격리 해제 <전파위험군 관리> 격리해제 후 배양검사 또는 PCR 검사에서 4시간 2회 연속 음성확인시까지 업무 제한 및 능동감시 * 전파위험군 : 식품·보육·요양시설종사자 등
접촉자 관리	- 발병여부 관찰(마지막 노출 추정 시점부터 10일까지) - 접촉자 중 유증상자인 경우 환자로 간주하고 검사 실시



02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- 살모넬라균 감염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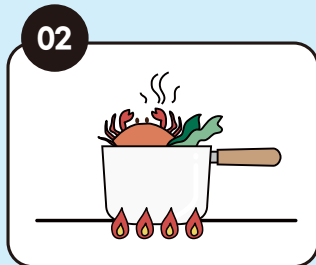
법정감염병 4급으로 분류되며,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2세 이하 어린이, **65세 이상 노인**에서 호발 되는 감염증이다.

전파 경로	- 날달걀, 덜 익힌 달걀 및 달걀 가공품, 생우유와 생우유 가공품, 오염된 물 등이 감염 원인식품임 - 사람 간 분변-구강 경로로 감염 가능
증상	- 발열, 두통,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 등의 위장증상(피가 섞인 설사 가능) - 수일에서 일주일까지 지속
치료	- 대증치료(증상에 따른 처방), 필요시 항생제 치료
환자 관리	- 증상이 있는 환자 중 고위험군 종사자*는 업무 제한 권고 *고위험군 종사자 : 보육·요양시설 종사자, 조리·의료 종사자
접촉자 관리	- 발병여부 관찰(3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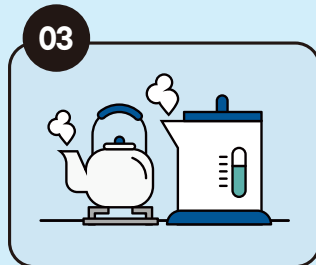


<수인성·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>

01. 올바른 손씻기 6단계 |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



음식은 충분히
익혀먹기



물은
끓여 마시기



채소 과일은
깨끗한 물에 씻거나
껍질 벗겨 먹기



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
음식 조리 및
준비하지 않기



위생적으로
조리하기



생선 고기 채소
도마 분리 사용
칼,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기

03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- 비브리오패혈증

법정감염병 제3급으로 분류되며, 주로 5~10월에 발생된다.



전파경로	-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-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여 감염
증상	-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 -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
치료	- 병변절제 :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- 항생제 치료
전염기간	- 전 기간 동안 가능, 매우 다양함
환자 및 접촉자 관리	- 격리 불필요(사람 간 전파 없음) - 접촉자 관리 불필요(사람 간 전파 없음) -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된 경우 접촉자 발병 여부 관찰

▶ 예방

간 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 등), 알코올 중독자, 면역저하자 등은 고위험 군으로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.

***특히 주의**



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
85°C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먹기
(특히 고위험군 어패류 생식 피하기)

***특히 주의**



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
바닷물과 접촉 금지



바닷물 접촉후,
물과 비누로 **노출 부위 씻기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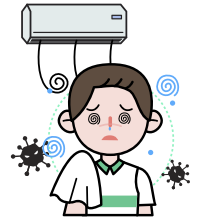
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
5°C 이하에서 저온 저장



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**장갑 착용**,
요리한 도마, 킬등은 **소독 후 사용**

04 호흡기 감염병 - 레지오넬라증

법정감염병 제3급으로 분류되며, 물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**급성 호흡기 질환**이다. 연중 발생하지만 **여름철(6~8월)**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. **50세 이상의 연령에서 호발하며**, 흡연자, 면역저하자,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.



전파 경로	- 대형건물의 냉방설비(에어컨 등)와 관련된 냉각탑수, 목욕 시 냉·온수, 목욕탕, 온천, 분수, 수영장 물놀이시설 등의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,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로 세척한 호흡기 치료기구나 분무기를 사용하였을 때도 감염 -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음 > 환자나 접촉자 관리가 따로 없음	
증상	레지오넬라 폐렴(폐렴형) - 두통, 근육통, 허약감, 고열, 오한 등 비특이적 증상(다른 원인균과 감별 어려움) - 마른기침, 복통, 설사 등이 동반됨	폰티악 열(독감형) - 짧은 잠복기의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2-5일 이내 회복됨
치료	레지오넬라 폐렴(폐렴형) - 항생제 치료	폰티악 열(독감형) - 대증치료(증상에 따른 처방)
예방 및 관리	-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(1주일 이상)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분리하여 세척한 후 2분이상 냉·온수를 흘려보낸 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- 가습기 사용시 매일 물을 교체하고, 청소 이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의 사용 - 호흡기치료 기기를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흡기치료기구에 멸균수를 사용해야 함 - 필요시 의료기관 급수시스템 환경배양 검사 고려	

<냉각탑 및 급수시설(온수기, 가습기, 에어컨 등)을 청소 및 소독 관리>

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수은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

